서울대와 천국

(막9:38-50)

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 (없음)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 (없음)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서울대와 천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서울대라고 하는 학교로서의 단체와 천국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차이를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울대라는 학교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울대를 들어가는 우리의 아들딸들을 보면 대한민국 전 영토에 흩어져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등 한 아이들일 것입니다.
물론 서울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꼭 일등이 아니라도 서울대에 들어갑니다만,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을 다 똑같은 수로 배정을 하면 모든 학교에서 다 일등하는 아이들일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어라키(hierarchy), 계층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하이어라키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hierarchy가 뭡니까?
원래 가톨릭의 교권제에 대해 사용했던 말이에요, 계층제라는 거죠.
교황을 정점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교황 밑에 주교, 그 밑에 사제, 부제라는 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교황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황을 거쳐서 주교단을 거쳐서, 사제단을 거치고 부제단을 거쳐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이르게 되는 그런 계층이 예수님과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 놓여 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계층제가 가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건제도 속에서 영주나 국왕과 무사 신하와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독점단계에 이르면서 어느 분야에서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점유율이 최고인 회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 안에서도 계층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료조직이라는 계층이 형성되어 있게 됩니다.
이 관료조직도 결국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피라미드 형식의 하이어라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일등을 향하여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일등이에요, 그리고 그 일등을 받쳐주면서 그 다음 세대에서 일등이 나와야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교 집단입니다.
그 주교는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제 집단에서 나옵니다.
사제는 또 부제 집단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일등을 향하여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서울대학을 일등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대 안에서 또 경쟁이 일어납니다, 또 1등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각과에서 일등들이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주교단과 같은 집단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에요, 국가의 관료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동회 사무원으로부터 해서 구청의 구청장들이 있고, 구청장들이 모인 가운데 시장, 그 위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서 장관이 나오고…
일등을 향하여 동회 직원부터 만들어진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 봅니다.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아, 모처럼 제자들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일등인가, 누가 첫째냐, 누가 크냐’를 갖고 다투었었는데, 제자들의 서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일치단결해서 금하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의 조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일치단결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요한이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보니, 자기 동료들 아홉 명이 어떤 아이에 들려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쫓아다니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제자들의 조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하고 난 뒤에 켕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혹시나 하며 만에 하나 이러면 어떨까 하고 걱정한 바로 그 지점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리고 50절까지 모든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도록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중간에 보면 '내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얻게 되리라, 나를 믿는 소자 중의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네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절름발이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한 마디로 말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편이 되려는 것을 방해하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소원하게 한다든지 끊는다든지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모든 것보다 연자맷돌을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더 낫고, 그러한 죄를 범할 바에는 손을 찍어내면서라도 경계심을 잃지 말고, 내 편이 되려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격앙되거나 역정을 내시는 어조는 아닌데 내용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편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이어라키 의식을 가지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미 열두제자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밑에 주교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열두제자라고 하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예수님께 접근하려면 열두제자라는 조직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런 계층제도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일등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등을 가려내려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열둘을 골라냈기 때문에 이 열둘을 거치지 않고서는 일등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등은 열둘 속에서 나와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열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서울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의 사범대학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모든 지방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갈 때는 의례 서울대 출신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라고 하는 직업군에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 계층이 형성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 교수님들이 서울대 후배들을 또 뽑아 갑니다.
서울대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1, 2, 3등을 가려내지만, 서울대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층을 형성하면서 그 라인을 유지해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1등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2천 년 전 제자들의 사회나 지금의 사회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항상 계층을 생각하게 돼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1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계층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1등이 되려면 계층을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새신자교육, 제자훈련, 지도자반, 교구장 모임 등, 계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설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새신자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목사님을 정점으로 하는 당회, 제직회라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1단계, 2단계, 3단계 등을 다 거쳐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놓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고 끼어들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제자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오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라고 할 때 신앙에서 지향하는 1등이 무엇이냐에 대한 오해가

이들에게 잠겨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1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1등 의식이 만들어낸 계층제도를 이때 벌써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가톨릭은 어쩌자고 그러는 건지 모르죠.
이런 계층제, 하이어라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열두 명 만들어진 이 조직의 초기단계에서 주님께서 아예 경계를 하시면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 직접 만나게 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모든 역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실족케 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무얼 오해했기 때문일까요?
천국은 서울대와 다릅니다.
서울대가 1등을 향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층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천국은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1등이어야만 그것이 신앙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1등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 마음을 끌만한 좋은 게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1등이라야 내가 하나님에게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돈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1등일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1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1등인 것은 모든 사람이 신앙인인 한에서 그래야 된다는 말이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1등인 자가 여럿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든 신앙인이 다 1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모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이 맞는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열두 명을 뽑았으니까 예수님 최측근으로서 일등은 이 열둘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그 열둘 중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이 더 나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금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금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나와 직접 관계를 맺고 내게 일등 하려는 자를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막으려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 말씀은 모두가 다 나와 직접, 중간에 아무 것도 없이, 내게 일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아버지께 천국에 대해서 일등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보같이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일등이 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허무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일등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등인 사람은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미 결정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가 일등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최측근이 되라는 겁니다, 최측근, 모두가 다 최측근이 되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인간으로써 보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은 불가능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등 된 자는 세상에서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모든 가치들을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가치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없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지위 없어도, 권력 없어도, 성공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일등 하는 자인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일등 된 마음이 무한히 깊이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사건이고 거기에서 주님이 당신이 일등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등 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면, 멋모르고 연합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등인 자리라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자리가 다 달라요.
금메달이 제일 높고 은메달이 그 다음, 그리고 동메달이 더 낮아요.
그래서 한 군데 일등자리에 한 사람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등 하신 십자가의 자리는 60억 인구 전체가 다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모두가 다 일등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신자 훈련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새신자 훈련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일등 된 자리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만 일등이고 장로님 중에서도 수석장로님이 2등이고 뭐 그런 겁니까?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일등 한 위치에 서게 되지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제자훈련이라는 의무조직을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직접 바라보고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일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일등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하이어라키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

님과의 관계를 한없이 멀리 늘여 놓느냐는 얘기에요.
‘너희들이 나와 그들, 내가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어깨너머로 나를 보고 나를 배우고 나를 믿고 받아들여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오히려 나와 더 가까이 일등인 자리에 서있는 것인데, 왜 너희가 열두 명이라는 제자조직에 의해서 그 관계를 금하고 방해하고 막느냐?’는 겁니다.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일등을 하고 싶어 하는 하이어라키 시스템 안에서 버벅대며 살고 있는 모든 꼴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해라!
그러면 모두가 다 일등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리이니까 내 마음을 끄는 경쟁자들이 다 죽는 자리에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경쟁자가 다 죽고 하나님만이 혼자 내 마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등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등인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서울대학에는 전국에서 일등인 자들이 모여서 일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어내지만, 천국은 이 사회에서 모든 꼴등, 모든 백등, 버벅대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일등 되면서 천국 안에 들어와서는 모두 일등으로만 유지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조직이 다른 계층이 없습니다.
그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에게 내 일등자리 뺏기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일등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일등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일등 되는 일에 자꾸 다른 단계를 갖다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주님의 십자가를 들이대고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우면 내가 일등인 것처럼 그도 일등 될 수 있고 바로 일등만이 신앙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등 없습니다, 이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층을 끼워 넣으면서 2등 3등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고 주님이 제일 무섭게 다루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사회에서 모든 꼴등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꼴등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붙잡으면서 모두가 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에 대해 일등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그렇게 일등 되게 하시고, 또 뒤늦게 믿는 나의 신앙의 후배들을 그렇게 일등 되도록 돕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